



오늘의 날씨 | 맑음 | 기온 3℃/16℃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음력 10월 20일)

기독일보

석간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722-8165

제 931호



“탈북민은 중국 사랑해… 중국도 탈북민 사랑해 달라”

‘제399차 선진중국 기원 및 탈북난민 복송중지 호소집회’ 미국 캠페인

세계 인권의 상징인 뉴욕 UN본부 앞에서 ‘탈북난민복송중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14일 오후 3시 ‘제399차 선진중국 기원 및 탈북난민 복송중지 호소집회’가 UN본부 앞에서 열린 것이 다.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2008년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탈북난민 복송중지 집회가 만 9년의 시간을 지나 400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를 기념해 399차 집회를 UN본부 앞에서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목사는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탈북난민의 강제복송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중국 선양에서 중국공안에 체포된 탈북민 가족 5명이 강제복송 이후 당할 고통의 두려움으로 집단 자살하는 안타까

운 사건과 최근 체포되어 강제복송 위기에 처해 있는 10명의 탈북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참으로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김 목사는 “유엔의 리더이며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강제송환을 금지한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반드시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중국이 계속적으로 극악무도한 북한정권을 돕기 위해 탈북민을 강제복송하고 있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모든 세계시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며 선진중국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에게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 했다.

그는 “이제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국가들은 탈북난민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고, “난민의 숫자가 많고 적응에 따라 관심을 달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시리아난민 못지않

게 탈북난민들의 생명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소중하다”고 했다. 또 “오늘 우리가 유엔본부 앞에서 유엔과 세계의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탈북난민의 강제복송이 영구히 중단되며 더 나아가 북녘 땅에 무자비한 독재와 폭력이 종식되고 속히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희망의 땅으로 변화되길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것”이라며 “아무쪼록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북한인권운동과 탈북난민 복송중지운동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금복 회장(탈북동포회)은 연대발언을 통해 “저희 탈북민들은 간절히 소망은 어서 속히 내 고향 북한이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땅이 되어 그리운 고향 땅으로 돌아가 그리운 가족, 친척,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라 말하고, “북한이 올바른 길은 가게 하려면 중국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특히 탈북난민을 강제 복송하는 일만 중단해도 북한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했다.

한 회장은 “저희는 중국이 세계 가운

데 존경받는 선진국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으며 반드시 중국이 세계 가운데 존경받는 선진국이 될 것을 확신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중국을 사랑한다. 중국은 탈북난민을 사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집회에서는 두 사람의 발언 외에도 강용주 부회장(탈북동포회)이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제399번 째 서신을 낭독했으며, 서명에 대표(대한민국사랑여성회)가 안토니오 구테레스 UN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신을 낭독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2011년 4월 탈북민들로 구성된 ‘고향의 봄’ 합창단이 고향의 봄, 과수원길, 북녘 땅의 호산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을 합창하며 캠페인을 실시하고 행사를 마쳤다.

방미단은 이날 외에도 15일에는 워싱턴 링컨기념관 앞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17일에는 나이아가라폭포 앞 캠페인을 벌였다. 또 18일에는 캐나다 토론토 CN타워 앞 캠페인을, 19일은 LA 할리우드 거리 앞 캠페인을, 20일은 그랜드 캐년 앞 캠페인을 진행하고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세계가 탈북난민 관심을”

‘제399차 선진중국 기원 및 탈북난민 복송중지 호소집회’ 뉴욕 UN본부 앞 캠페인 모습. 탈북민들이 직접 함께 했다. 선민네트워크 제공

“인구 절벽 극복 위해 출산과 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필요”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제34회 정기 학술대회, 실천신대 정재영 교수 강연

미국의 경제 예측 전문가 해리 덴트는 한국의 소비지출은 2010~2018년에 정점을 찍고, 소비가 가장 왕성한 이 연령대가 줄어드는 2018년부터 한국 경제에 ‘인구 절벽’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바 있다.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제34회 정기 학술대회를 통해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 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는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고민했다. 그는 강연을 통해 먼저 인구 절벽 현상은 인구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회 문제로부터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야기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정 교수는 출산을 제고할 위해 기독교인들이 출산을 신성한 책무로 받아들이고, 교회 전체가 자녀 양육에 대해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더불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목 받고 있는 공동육아에 대해서도 교회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별히 정 교수는 출산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회에서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고 부모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면서 “은연중에 퍼져 있는 교회 안의 경제주의식 사고와 여성을 차별하는 교회 제도, 그리고 출산과 양육을 사소하게 여기는 남성중심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정 교수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이로 인한 경제 상황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공동체 자본주의’를 주장했다. 공동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성경적, 시대적 대안으로, 경제자유와 경제정의의 유기적 조화를 지향한다. 더불어 ‘다 같이 더 잘 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천부인권과 정직(Integrity)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정의 하에서 개인들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최대한 보장되고, 창의적 방법에 의한 자발적 나눔이 문화가 되는 자본주의이다. 때문에 정 교수는 제한한 대안 경제 활동은 공정 무역과 윤리적 소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것들로, 그는 “현재의 자본주의의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빈곤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정 교수는 종교의 생명력이 현실에 대한 ‘초월성’에 있다고 말하고, “교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세속 가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말 인구센선스 결과 개신교가 우리나라 1위 종교로 등극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이제 한국교회와 대표 종교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은 인구 절벽을 맞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의 밑바탕에는 삶의 의미를 지나치게 경제적인 가치와 효율성으로 따지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우리 사회를 더욱 심한 경쟁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비인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라며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구절벽시대와 묵화”란 주제로 열린 이번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정기 학술대회는 18일 합선대에서 있었다. 행사에서는 정재영 박사의 주제발표 외에도 권 호 박사(국제선대)가 “인구절벽 시대의 균형목화”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후 분반 자유발표가 진행됐다. 행사 전 예배에서는 정창훈 목사(합선대 총장)가 설교를 전했다.

조선식 기자

미국인 64% 대마초 오락용 합법화 지지, 그 의미는?

갤럽 “이 흐름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입장과 비슷하다”

지난 7일 선거에서 대마초(마리화나)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를 지지해온 민주당 후보들이 뉴저지와 버지니아에서 주지사로 당선되면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가 주별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저지 주지사로 당선된 필 머피는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대마초를 합법화 해서 이를 통해 얻어들이는 3천억 달러의 세수를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하겠다고

공약해왔다.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자인 랄프 노산 역시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다. 그는 흑인들이 사법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으로 대마초 소지를 범죄 항목에서 빼는 것이라고 밝혀왔다.

노산 당선자는 버지니아에서 흑인들이 대마초 소지로 체포되는 비율이 2.8배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지니아에서 대마초 범죄를 단속하는데 6,700만 달러가 소

요된다며 이 돈이면 10,000개의 프리스를 열 수 있다고 말해 대마초 소지가 범죄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시사해왔다.

현재 미국에는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메인, 네바다, 콜로라도 등 8개주와 워싱턴 DC에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이 합법화된 상태다.

특히, 미국 인구의 12%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이 합법화되면서 미국 전체적으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전망의 배경에는 아직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마약으로 규정되어 소지, 사용이 불법인 대마초를 오락용으로 사용하

는 것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은 64%로 역대 최고다. 갤럽이 1969년 처음 이 질문을 했을 때 미국인들의 12%만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를 찬성했다. 이 입장은 1980년대, 1990년대 변화가 없이 유지되다가 200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갤럽은 이 흐름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인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1990년대 27%만 지지한다고 했고 꾸준히 증가하더니 2015년 연방대법원이 동성결

혼 합법화 판결을 내리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갤럽은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미국사회에서 수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도덕적 이슈에 대해 미국인들의 진보적인 견해가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했다.

지난 5월 갤럽은 19가지 이슈에 대해 도덕적으로 용납되는지 질문을 했다. 19가지 도덕적 이슈는 동성애, 결혼 전 출산, 결혼 전 성관계, 이혼, 일부다처제, 피임 등이다. 피임에 대해 미국인들은 91%가 도덕적으로 용납된다고 답했고 이혼은 73%,

결혼 전 성관계는 69%, 동성애 65%, 결혼 전 출산 62%, 줄기세포 연구 62%

가 도덕적으로 랜잡다고 답했다.

주목할만 한 것은 변화의 폭인데 ‘동성애’는 2001년 처음 조사 당시 40%가 도덕적으로 용납하겠다고 했는데 2017년에는 63%로 23%가 증가했다. ‘결혼 전 출산’을 용납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2001년 45%에서 2017년 62%로 17%가 증가했고 ‘결혼 전 성관계’는 2001년 53%에서 69%로 16%가 증가했으며 ‘이혼’은 2001년 53%에서 69%로 16% 늘었다.

이런 변화는 미국인들이 한 때는 금기시했던 도덕적 이슈들을 이제는 관철한다고 받아들이는 식으로 미국사회가 도덕적 이슈들에 대해 진보적이 되고 있다고 갤럽은 분석했다.

글=케이아메리칸포스트 제공

‘별이 된 시인’ 윤동주 탄생 100주년기념展

시인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전시회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인사교전문화중심(구 화봉갤러리, 02-735-5401)에서 한국교회건강연구원(이사장 신상현) 주최로 이달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그의 유고시 원고 및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비롯하여 사진, 관련저서, 일본 재판부의 판결자료 등 150여점이 전시 소개되어 그 당시의 시인을 만나게 한다.

1900년대 북간도 용정의 인물중 나온 규 영화감독의 ‘아리랑’과 선구자의 조두남 자서전, 윤동주가 좋아했던 시인 정지용과 이육사, 이상, 김영랑 등 국내시인과 장점심, 박두진, 박목월, 김현승, 김남조 등 크리스천시인들의 시집도 함께 전시된다.

특히 1947년 2월 13일자 경향신문 4면에 발표된 ‘쉽게 쓰여진 시’와 3월1일자 김용호가 발행한「문화창조」(2호)에 윤동주의 시 ‘무서운 시간’이 소개된다.

1948년 2월 16일 윤동주 시인 남긴 31편의 시를 모아 정음사에서 만든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10부를 추모식용으로 제작하여 첫발간된 것으로 하늘과 별과 시’가 내용으로 죽었던 시인이 다시 시로 부활하게 된다.

그는 생전에 시집의 원고를 가장 친한 친구였던 정병욱과 연희전문학교 이양하

선생에게 한 부씩 나눠주었는데, 정병욱이 보관하였던 원고가 남아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상현 이사장은 “시인 윤동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자,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사랑받는 세계적 시인”이라며, “글이 곧 사람이라고 하지만, 글과 사람이 그토록 일치하게 삶을 살아간 시인의 예를 윤동주 시인에게서 발견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어려운 시대를 부끄럼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느낌을 부끄러워하고 솔직히 고백하고 참회하는 그를 대면하기에 그의 시는 이 시대 시심(詩心)의 부활과 더불어 시의 부흥(復興)을 꿈꾸게 한다”며 초청의 말을 전했다.

별이 된 시인 윤동주의 탄생 100주년 기념전시회에는 기념전시와 더불어 기념강연을 가지는데, 11월 29일 윤동주 캘리그래피전의 이청옥 작가가 ‘시인 윤동주, 캘리그래피를 만나다’를 통해 윤동주 시인의 그 발자취를 찾게 되고, 12월 4일(월) 윤동주평전의 저자 송우혜 교수가 ‘윤동주와 시대정신’, 12월 9일(토) 시인이자 시집 ‘다시, 별 해는 밤’의 저자 소강석 목사의 ‘민족 예언시인 윤동주를’, 12월 13일에는 서지연구가로 기독교 문화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연구원 이효상 원장의 ‘시인 윤동주와 해방문학’이라는 주



제로 해방기의 작품들을 소개하게 된다.

기념강연에 참석한 이들에 한하여 강연 및 전시도록을 무료로 제공한다. 전시회는 2주간 개최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관람으로 주일은 쉽다.

또한 12월 11일에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스타디 시낭송회 시율림이 윤동주 시를 낭

송하는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

이효상 원장은 “이번 전시회를 방문하면 윤동주 기념전시와 더불어 (주)화봉문고가 가진 한국문학사의 100년을 볼 수 있는 회귀본 문학교서가 함께 전시되어 찾는 이들은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게 될 것”이라 전했다.

이나래 기자

김만희 정규 1집 “허락하시면 그 한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김만희, 그는 대한민국의 CCM 가수가

자 찬양사역자, 문화선교사이다 그는 말했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CCM 가수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역자, 선교사의 길은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겪어야 하는 삶이라는 혹독한 훈련과 반복되는 검증의 시간,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빚어져 그제야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걸어갈 수 있는 길이겠다고.

위경, 축복의 사람을 거쳐 지금의 김만희로 서거까지 오롯이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렇기에 지금 그의 앨범에 수록된 모든 곡들에서 큰 울림이 느껴진다. 앨범의 두 타이틀인 ‘허락하시면’, ‘한 사람’은 모두 그가 직접 쓴 가사로, 김만희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사역을 통해 살아온 삶의 시간과 열정, 하나님의 나라와 한 영혼 향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주님 허락하시면 나아가리라 이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리 열방 향해 한 영혼 위해 내 모든 삶을 내 인생을 주께 드리리 -허락하시면 가사 중에서- 그 한 사람 이제 내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이제 내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축복의 사람 -한 사람 가사 중에서-

이와 더불어 그의 오랜 동역자인 김주일(Day7)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붙여 곡을 완성했다. 그는 이번 앨범의 공동 프로듀서로 BMK, 홍대광 등 유명 대중음악 가수들의 곡을 쓰기도 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세션들과 앨범의 완성도를 높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타리스트로 손꼽히는 홍준호, 최고의 베이스리스트 최훈 등이 참여했고, 최근 장범준 2집, 멜로망스 등의 음악을 믹스한 엔지니어 이창선이 전 트랙 믹스를 맡았다.

이번 앨범을 통해 김만희는 크게 두 가지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하나는 이번 앨범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문장, “허락하시면 그 한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의 모든 크리스천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과 다른 하나는 찬양을 통해 문화선교의 길을 열고 선교지와 교회를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

크리스천 음악 시장이 너무 힘들다는 요즘 어떻게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열방 가운데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부르심이고, 제가 가진 물맷돌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심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올해로 500주년을 맞은 루터의 종교 개혁, 그 의미를 더욱 가슴 뜨거운 메시지로 다가오게 한다.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의 의미,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를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한 사람을 말이다.

지금 김만희 1집, 그가 부르는 찬양을 듣고 함께 고백해 보자

“허락하시면 그 한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이나래 기자

애니메이션 ‘더 크리스마스’... 머라이어 캐리 OST 참여

비글미 넘치는 동물들의 모험을 통해 첫 크리스마스의 탄생을 그려낸 애니메이션 ‘더 크리스마스’가 캐럴의 끝판왕 머라이어 캐리의 OST 참여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체불가 캐럴의 끝판왕 머라이어 캐리가 ‘올 아이 원트 폴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를 있는 새로운 캐럴로 12월 극장가를 찾아온다.

‘몬스터 호텔’ ‘스머프’ 제작진이 전하는 첫 크리스마스의 탄생을 담은 애니메이션 ‘더 크리스마스’의 OST에 참여, 새로운 캐럴로 전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인 것. ‘더 크리스마스’는 작지만 웅감한 당나귀 ‘보’와 천방지축 동물 친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환상의 모험을 그린 영화이다.

머라이어 캐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속 숨겨진 이야기를 기발하고 귀여운 상상력을 통해 그려낸 ‘더 크리스마스’ OST를 통해 새로운 캐럴 ‘더 스타’(The Star)

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특히 이번 OST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윙크 앤 스마일’(A Wink and a Smile), ‘사우스 파크’의

‘블레이드 캐나다’(Blame Canada) 등으로 유명한 마크 사이먼 음악 감독의 참여로 캐럴의 완성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그들이 ‘더 크리스마스’의 몇 장면을 본 후,

녹음실로 들어가 48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바로 곡을 만들어 냈다는 후문이 전해지며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더 크리스마스’의 프로듀서 디본 프랭클린은 OST ‘더 스타’(The Star)에 대해 “노래를 처음 듣는 순간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지금까지 들은 노래 중 가장 큰 울림을 준 노래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노래와 함께 모두가 알고 있는 친숙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개성만점 동물 캐릭터의 모험으로 재탄생시킨 ‘더



크리스마스’

또한 금급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믿고 들을 수 있는 OST와 기발한 상상력을 토대로 본 적 없는 새로운 애니메이션의 탄생을 알리고 있는 ‘더 크리스마스’, 올겨울, 관객들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탄생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재탄생 시키며 관객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애니메이션 ‘더 크리스마스’는 오는 12월 20일 CGV에서 만날 수 있다. 머라이어 캐리 외에도 켄타 토닉스, 올란타 아담스, 피프스 하모

이나래 기자

기록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판국장 장세규	교계판국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광고 및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구독문의 070-4352-2480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월드비전 마이키즈 캠페인 참여방법!

1. 월드비전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2.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월드비전 마이키즈 캠페인 참여방법!

1. 월드비전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2.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목회 초창기의 아름다운 마음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명성교회 세습을 보고

◆머리말

김삼환 목사의 양식(良識)을 기대한 자들은 명성교회의 후임 목회자 선정이 종교개혁 5백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진정한 자기비움과 마음정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조선일보, JTBC



살롱나비 상임대표기독교학술원장 김영한 박사

뉴스룸을 비롯한 일간 신문, 인터넷과 교계 인터넷 신문들은 지난 2017년 11월 12일 명성교회가 담임목사직을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승계하는 위임식을 거행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이 임여왔던 담임 목사 가운을 입혀주고 안수하는 장면을 실으면서 많은 양식 있는 신자들과 일반 시민들을 실망시켰다고 보도하였다. 명성교회측은 한 일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은 공동의 회를 통해 진행된 민주적 목회 계승”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양식 있는 목회자들, 성도들, 세인들에게 수긍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장로교회사에서도 오점(汚點)을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잠 14:34).

1. 종교개혁 5백주년 맞이하는 한국교회에 반종교개혁적인 오점(汚點)을 남긴 사건

이번 세습 사건은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에서 일어난 세습사건이며, 종교개혁의 5백주년 정신을 훼손시키는 반종교개혁적인 오점을 남긴 사건이다. 이는 중세교회의 교황주의에 반대하여 일어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에 배치되는 결정이다. 중세교회에서 교황 일인 하에서 모든 교회 경영이 이루어졌다면 명성교회의 세습사건 역시 교단 총회의 결정이 무시되고 노회원들의 강력한 반대를 개 교회주의로 따돌린 대형교회 독선주의 행태이기 때문이다. 예상 통합 동남노회 동료 목회자들은 이 세습 위임식에 대하여 “너무나도 부끄러운 짓이기에 참담하다..이는 결코 명성교회라고 하는 한 지 교회에 국한한 일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는 항의하고 있다. 세습반대자들은 다음 같이 천명하고 있다: “명성교회는 마치 이 시대의 로마제국과 같이 초대형교회의 권력과 명예와 부와 영향력을 가지고 맘몬의 힘을 빌려 거

룩한 주님의 교회를 억압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명성교회는 개 교회 결정을 내세워 한국교회 전체와 통합교단이 정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이번 세습은 앞으로 한국교회의 다른 대형교회들에게 “교회 헌법을 어겨도 괜찮다. 정당화 된다”는 그릇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상 통합 총회장 최기학 목사는 11월 14일 총회 임원회 정기회의에서 헌법 내 소위 세습방지법의 효력이 살아있다고 밝히면서 “법과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총회를 만들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며, “총회는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또한 명성교회 목회 세습 이후 한국교회가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회의 강함은 교회당 건축물의 거대함이나 많은 신도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건축물에 작은 수이지만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들의 자기비움과 헌신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2. 목회세습과 대형교회당(주교좌성당) 세습은 다르다.

아버지의 성직을 아들이 이어받는 것은 성직(聖職)의 아름다운 승계라고 말할 수 있다. 아들이 목사(牧師)로서의 소명을 아버지의 소명과 같이 이어받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의 세습이 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성직의 세습에 관한 실례가 없다. 중세교회로 거슬러올라가면 수도승 힐데브란트(Hiltebrand)가 교황(그레고리 7세, Pop Gregorius VII, 1073-1085)으로 선출되어 성직자 독신주의를 도입하게 되어 성직 세습을 제도적으로 근절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소박한 시골교회당이나 소형교회당 세습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평범한 교회당 세습은 부자간에 성직이 계승되는 것으로 아름답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만 명 성도들이 모이고 엄청난 재정, 종교적 권력이 집중되어 신자와 일반인들의 주목을 받는 대형교회(중세적으로 말하면 주교좌성당)의 승계는 소박한 마을 교회당 목사직의 승계와 동일시될 수 없다. 여기에는 종교권력(교회당의 힘)이 승계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교회의 목회승계를 종교개혁 정신과는 달리 물려가는 오점(汚點)의 사건이기도 하다. 교회의 권력은 정권이나 기업차원의 권력과는 다른 차원의 권력이기 때문이다. 정권 차원이

나 기업차원의 권력은 힘의 경쟁 가운데서 약자 도태, 강자 쟁취인 데 반해서, 교회의 권력은 자기비움과 헌신에서 나오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권력은 약함 가운데 주어지는 강함이기 때문이다.

3. 대형교회당 세습은 재벌 세습과 동일시되어 세인들의 비난을 받는다.

재벌 회사 회장직(CEO)의 세습들이 세인들로부터 비난 받는 한국사회의 상황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한국교회는 다르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다. 세습 금지의 지난 6년 전 당시 세습이만 연했던 감리교회에서 2012년부터 자정(自淨)노력으로 시작되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그 나름대로 안착되었다. 세습목회 금지법이 아름다운 법과 원칙으로서 예상 통합 측에서도 수용되어 총회의 법(세습방지법)으로 정해진 것이다. 당시 일반 언론들도 이를 한국교회의 자정 노력이라고 찬사(讚辭)를 하였다. 그런데 주목받고 있는 명성교회가 담임목사의 수차례 한 약속을 반복하고 무효화시킨 것은 개 교회 독선주의로서 결코 바람직 한 것이 아니다. 이는 종교개혁 5백주년을 기념하는 한국교계와 신학계에 오점을 남기는 사건으로서 5백주년 종교개혁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들이 목회자 세습금지를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감리교단, 예상 통합 교단, 기장 교단 등은 교단 차원에서 세습방지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세습에 대해 예상 통합 교단적으로 물의가 일어났고, 소속 노회목회에서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소속 노회목회자 538명의 반대 성명이 있었고, 장로회 신학생들과 신학교수들의 반대 성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명성교회가 이런 가운데서도 세습을 강행한 것은 ‘오늘날 양적 성장과 대형교회는 여전히 좋다’는 대형교회 성공주의를 드러내는 영광신학의 대표적 실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4. 초창기의 아름다운 마음목회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김삼환 목사는 초창기에 머슴목회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모범이 된 것으로 안다. 목회자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성도들의 머슴이라는 것이다. 그가 이해한 목사직은 머슴 직으로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양들인 성도들을 섬기는 성직이라는 고귀한 정신이었다. 김 목사는 이러한 머슴목회로 10만 명이 교인으로 등록된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라는 초대형교회를 이루었다. 그런데 그의 은퇴일이 다가오면서 지난 2015년 말 후임자 없이 정년(70세) 퇴임하면서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승계한다는 소문이 교계에 돌았다. 그러나 그는 이를 부인해왔다. 김 목사는 몇 차례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



세습 논란의 중심에 선 명성교회 김하나(왼쪽) 목사와 아버지 김삼환 목사.

기록일보DB

김 목사는 지난 2016년 1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을 청빙 후보에서 빼달라고 했다.” “(아들 문제) 제가 상처입는 것은 괜찮지만 교회에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적 있다. 그는 자신의 퇴임 시에 주어지는 거액의 은퇴금을 거절하고 교회에 회소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것으로 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김 목사가 새노래명성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아들을 다시 명성교회로 불러 들어 후계자로 삼은 것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니라 교회의 황제로 등극한 것이 아닌가 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그를 개인적으로 알고 아가는 자로서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2014년 명성교회 지원으로 문을 열어 현재 출석 교인 2000명에 이르는 새노래명성교회 11월 12일 주일 오전예배에서 김하나 목사는 “죄송하다”는 말만 열 번 넘게 했다. 그는 설교에서 “저로 인해 마음 상하고 실망한 성도들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 예배 후 ‘사임 인사’ 때에는 특히 “그동안 밖에서, 미디에서 하는 지적이 일리 있고, 맞는 말이었다.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제가 지겠다”고 말했다. 아들 김 목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미국에서 세탁소라도 했으면”라는 심경표현은 내면적 고뇌가 컸던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비난을 감지하고 책임지겠다는 의식을 가진 김하나 목사가 만일 주변의 세습 권유를 뿌리치고 세습 아닌 자신의 독립 목회를 결행(決行)했다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만일 그랬다면 이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두고두고 아름다운 목회 결단으로 평가될 수 있었을 것이다.

5. 목회자의 윤리는 세상 지도자들의 윤리보다 높아야 한다.

2015년 12월 기준 통계청의 종교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제종교(967만 명, 19.7%)가 되었다. 그러나 목회자의 윤리와 의식이 세상의 정치인, 기업인들보다 지식인들보다 높지 않으면 한국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제종교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 초창기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단지 교회 책임자를 넘어서서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선구자였고, 윤리적 의식이 탁월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모이는 교세와 재정능력 만을 가지고서는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갈 수 없다. 그러한 권력과 재력은 정치인들과 재벌이나 기업인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잘 알려진 이영표 KBS 축구해설위원이 명성교회 세습 강행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표 위원은 11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존경받는 모습으로 떠날 수 있었던 한 목사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세습’이라는 이름으로 끝나고 말았다”라며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아무리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판단과 분별의 경계가 희미해진 사람들에게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 분별력을 상실한 체 틀린 것을 단지 다들 뿐이라고 말하는 상실의 사람은 더더욱 되지 말자”고 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평신도들의 아무 사심 없는 예리한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이 필요

하다. 교회는 세상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자기비움이고 섬김이다. 교회는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증거해야 한다. 나사렛 예수는 자신을 지극히 작은 소자와 동일시했다. 중세교회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유해졌을 때 이들로부터 나사렛 예수의 능력은 상실되었다. 그것이 천년 중세 기독교의 암흑을 가져온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영광의 신학으로 자신을 증거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십자가라는 세상이 멸시하는 수치와 굴욕과 약함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발견한 십자가 신학 착상의 핵심이다.

교회가 지나치게 커져 위계질서화 되면 기업이나 관료조직으로 변모되어 자기혈육인 아들만이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11월 13일 오후 방송된 JTBC뉴스룸 ‘탐사 플러스’도 명성교회 세습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이번 세습 식으로 ‘새노래명성교회는 명성교회에 합병’되었다. 교회는 관료조직이 아닌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인데 교회가 커지게 될 때 가구화 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거대한 교회는 조직 유지를 위해서는 조직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이에 불복하면 탈락되고 이러한 위계질서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자는 다른 외부 사람이 아닌 직계 혈육밖에 없게 된다. 그것은 스위스 신학자 에밀 브룬너(Emil Brunner)가 『천8백 년 동안의 교회의 오해』라는 저서에서 말한바 같이 은혜 공동체인 초대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제도교회로 변질되었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교회가 위계질서화 될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때 교회는 기구화 되고 세속화 되어 교주의 소유물이 되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위계질서화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다. 조직의 지도자는 끊임없는 자기 부정과 자기 비움을 통하여 권력을 동역자들 가운데 분산시키고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협의체가 요구된다.

7. 교회당 세습은 주님의 몸인 공교회의 사유화이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며 절대로 사유화 할 수 없다. 세습하는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한평생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룬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목자의 사고가 아니라 세상 혈육인의 사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피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목회자 개인이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와 장로와 제직들과 평신도들이 공동으로 바치는 헌신과 섬김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담임목사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들의 교제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담임목사가 좌지우지 할 수 없다. 담임목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다. 담임목사는 교회의 황제가 아니라 머슴이기 때문이다.

8. 교회의 영적 권위는 사회인의 윤리 의식보다 높을 때 주어진다.

김삼환 목사 부자(父子)는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의 합병 및 세습승계가 양식 있는 기독교인들과 세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규모가 크다고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양심과 행동을 모범적으로 보일 때 그것이 누적되어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비난 받는 일을 반복하게 될 때 그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세습은 명성교회가 소속한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거센 반대를 받았다. 그래서 아들 김하나 목사는 “우리는 세상과 교계의 우리를 공감한다. 저는 그 세상의 소리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의 그러한 지적들과 우리들에 대해, 우리는 우리 교회의 존재로 풀어가야 한다” “다만 우리는 그 우리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해 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김하나 목사는 이번에 그가 한 말을 두고두고 명심하면서 그가 한 말이 어려운

상황 모범을 위한 임기응변이나 자기변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만일 명성교회에 다른 절고 유망한 목회자가 후계자로 청빙되고 김하나 목사가 새노래명성교회의 목회자로 머물렀다면, 김삼환 목사도 교계 적으로 사회적으로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존경을 받게 되고, 김하나 목사는 교계와 세인의 축복 속에서 양심의 깨리낌없이 발전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여건에 있게 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한다. 그리고 예상합동 측로교 대령교회 세습을 방지하는 선구적(先驅的) 사건으로 기록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9. 영광의 목회 아닌 십자가의 목회가 요구 된다

김삼환 목사는 세습 승계 식에서 “김하나 목사도 힘든 십자가를 짊어주셨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이 교회를 감당할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도는 작은 자, 어리석은 자, 약한 자를 들어서 크고, 지혜롭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명성교회는 세상의 크기과 권력을 내세우는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고 작고, 어리석고 약한을 중시하는 십자가 신학을 등한시한 것이다. 명성교회는 세습으로 오늘날 한국

기교

교회에 오점을 남겼다. 이는 십자가의 목회도 아니고 머슴목회라는 초창기의 아름다운 시절을 상기시키는 목회가 아니라 혈육이 후계자가 되는 영광의 목회라는 비난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

명성교회의 목회세습은 중세 천주교의 영광신학을 추종하는 목회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성찰 가운데서도 시인이기도한 고훈 목사는 세습 예식에서 다음 축시를 낭송했다: “오직 예수 55년을 하루같이/무릎으로 걸어온 평생 머슴 목회/낮은 곳이 더 아름다운 겸손한 목사/모든 것 다 바치고 빈손 되어 부요한 목사/기쁨 속에서도 눈물 흘리시는 사랑의 목사/ 주께서 위하여 십자가로 세운 교회/비판하고 정죄하여 심판할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사람에게 버림받지 않고 돌 맞지 않고 서 있는/의로운 교회도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욕하면 욕먹고 누가 때리면 맞으십시오/그것은 그들의 의로운 자유요/이것은 명성이 줄어질 자유입니다.”

필자가 고훈의 시(詩)에 전적으로 동감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시가 세습하는 한 목회자 개인의 비위에 맞는 찬사와 위로에 정위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정의(正義)와 윤리를 도외시켰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길은 개

인이나 한 단체의 유익보다는 전체의 유익을 더 우선시하여 개인과 일개 단체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칼빈이 말하는 성화의 길이란 십자가 안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mortification)과 자기 살림(vivification)이다. 계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기도와 행동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가 요청되는 것이다. 필자는 자신의 비판적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필자 자신은 의인(義人)도 아니고, 비난 받을 것이 더 많은 허물투성이인 죄인이기 때문이다. 필자 자신도 비난받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일원이다. 명성교회의 이러한 세습행동으로 한국교회 일원인 우리 모두가 오점(汚點)의 명예를 뒤집어쓰고 있다.

◆맺음말

김삼환 목사는 30여 년 전 명성교회를 개척하여 세계적인 장로교회로 발전시키고 WCC 한국 총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회하는 등 한국교회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종교개혁 5백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에 명성교회가 양식(良識)에 준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심는 목회 후계자 승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큰 기대가 있었기에 사랑의 총언을 드리는 것이다. 만일 그가 초창기 가졌던 머슴 목회 정신을 퇴임식에서도 실천했다면, 그가 목회세습으로 갖는 한 개교회의 영향력 이상으로 한국교회사에 길이 남는 머슴 목회 정신을 실천한 목회 거목(巨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다.

필자는 인간적으로 아까는 김삼환 목사의 깊은 자기 성찰과 자기 비움이 있기 바라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에 상응한 행동을 하기를 동요로서 기대해본다. 아브라함 링컨의 말처럼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끌어들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비우고 우리의 뜻과 행동을 하나님의 편에 세울 때 우리는 진정하게 하나님의 편이 되어 그 분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초창기 머슴 목회 정신으로 되돌아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추기(追記): 필자 자신은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였던, 아까는 동료를 닮아가는 일을 쓰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언론으로부터 명성교회 세습에 관해 글을 부탁 받았을 때 거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한국교회의 자정(自淨) 기능에 참여하는 것이 후대를 위하여 하나의 뜻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한 미국인 목사 부부가 매일 아침 정릉 고가도로 밑에서 한국 초기 기독교인의 설교를 읽고 녹음하게 된 이유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나를 좋아했지만 한국인이 아닌 사람과의 결혼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나와 결혼을 한 다 해도 전혀 한국사람이기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생각은 사실 나에게 있어서 지키기 쉬운 약속이었다. 아내를 만난 날부터 나는 한국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기 시작했고, 그 모든 것이 매우 흥미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한국 음식만 먹기 시작했고, 모든 한국 음식이 맛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내가 체중까지 크게 줄어들면서 더욱 건강해졌다. 그 어떤 것도 내게는 희생 같지가 않았다. 개인적으로 나는 더 많이 배우게 되었다.

우리가 결혼한 후, 아내를 설득해 함께 한국을 섬기자고 했던 것은 바로 나였다. 춤에 천천적인 소질이 없으면서도 아내의 한국 전통 무용 공연에서 그녀와 함께 공연하기 위해, 나는 밤새도록 차고에서 한국춤을 연습하면서 아내를 거의 미치게 만들기도 했다. 나는 몇몇 작은 한인 교회에서 영어사역 목회자로서 파트타임 사역을 맡기도 했다. 비록 전세계 1,500개 이상의 사역 단체와 교단들에게 조언과 상담을 해주는 일과 훨씬 더 큰 미국 교회와 사역 단체의 담임 목회자로서 섬겼었지만 말이다. 나는 한국을 통해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으며, 할 수 있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그렇게 배운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내 나를 놀라게 한 사실은 정작 한국인들은 한국 문화나 역사, 혹은 한국이라는 기본적인 존재를 높이 평가하는 나의 생각에 대개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하늘을 배경으로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윤곽)만 보더라도, 현대 한국 문화에 관한 것이 있는 진실을 알 수 있다. 한국인들은 오래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늘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을 허물어버리고는 그곳을 새 건물로 대체해버린다. 한국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한다. 마치 자신이 못생기게 태어난 것이 의심할 나위 없는 진실이라 여긴다. 그래서 점점 더 어린 나이에, 그리고 점점 더 심한 외과적 방법으로 성형 수술을 감행하여 이러한 선천적 결함들을 뜯어고쳐야 한다. 흰머리가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로써 젊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것조차도 한국인들에게 힙거운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자신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일은 거의 강조되고 있지 않다. 독점함과 다름은 없어야 할 약점이 되었다. 언제나 인기 있거나 대단하거나 성공적인 것과의 유사성이 추구되기 때문이다. 현대 남한의 기독교 모습에서는 모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미국을 제외하

고 남한에 있는 교회건물들보다 더 미국 같아 보이는 곳은 없다. 미국을 제외한 그 어떤 곳의 목회자도 남한보다 더 미국 인처럼 옷을 입지는 않는다. 아니면 적어도 남한의 교회는 미국 교회들이 보여주었던 방법과 미국 목회자들이 입었던 옷을 모방한다.

그리고 결혼한 초기에 내가 만났던 남한 목회자들은 그런 모습을 최신의 모습으로 바꾸야 할 때가 아닌지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었다. 1991년부터 남한 교회의 교인수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남한 목회자들은 전 세계를 돌면서 부흥과 회복을 가져다 줄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한 남한 목회자들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나와 아내는 이러한 남한 목사로 구성된 큰 그룹들을 우리 집에서 대접하였다. 그들은 나를 만나고 싶어했는데, 내가 미국 사역 단체들의 최고 지도자들 다수와 친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기쁘게 그들을 소개해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한국 목회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성공한 미국 목사들로부터 청중함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영적으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 교회와 분단된 요침의 운동의 심각한 문제들에 관한 해결책이 모두가 초기 한국 교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히 귀를 기울일 때에만 비로소 주어질 수 있도록 정하셨다고 믿는다. 이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의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훨씬 더 큰 문제들과 마주했었다. 그리고 그 결과 기독교 역사상 거의 유례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문화와 언어와 문자와 신지어는 고난을 견딜 능력까지도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개조하거나 버릴 수 있는 원료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선물로써 그것들을 수용하였다.

사실, 나는 남한 교회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다수의 문제들이 힘들게 얻었던 한국 초기 기독교인들의 ‘불로 연단한 금’을 한쪽으로 미뤄두고, 그 자리를 한국 전쟁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던 미국 기독교인들에게서 받아들이 새로운 신학적 싸구려 보석과 장신구들로 대체해버린 데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싶다. 오늘날 남한 교회의 거대한 건물과 엄청난 위엄, ‘아름다운 기독교’는 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상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각한 것이다. 이제 현대 남한 기독교는 서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워보이든지 간에 내부에서부터 녹이 슬며 허물어지고 있다. 그들 다수는 그야말로 우리 세대에서 그 존재를 다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남한 목회자들은 남한 교회의 급격한 쇠퇴를 여전히 부정한다. 또 다른 목회자들은 계속 해외에서 해답을 찾아다니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직 배우지 못했던 것을

찾아냄으로써 해답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때는 알았으나 이제는 잊어버린 것들에 새롭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내와 나는 한국 초기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던 것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이 북한과 전 세계 다른 폐쇄적인 국가들의 지하교인들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지난 15년 간 이러한 성도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현재 남한 기독교보다 훨씬 더 한국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실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아왔다. 그것이 바로 북한과 다른 폐쇄적인 국가들의 성도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편안하기 위해서가 아닌 이유이다.

그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유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진리를 위해 살기 위함이며, 이것이 곧 ‘순교자’라는 단어의 의미이다. 한국의 초창기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오래 전 존재했던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제자 훈련을 ‘하늘의 컨테스트를 대비한 훈련’이라 정의했다. 즉,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고난을 감수하는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의 몸과 혼과 영을 준비했던 것이다.

그들은 세 가지 종류의 순교를 세 가지 색깔로 구별하여 이야기했다. 녹색 순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을 의미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흰색 순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라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빨간색 순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을 뜻하며, 이는 녹색과 흰색 순교와 정도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종류의 순교가 아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색깔에 대해서는 잘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것,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임을 알고 있었다. 여전히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실이 진리인 나라에서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이 진리가 무시되거나 단지 영적인 것으로 해석된 곳에서는 교회가 쇠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 만큼이나 북한에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개 자신이 보다 더 행복해지는 데 집중하고 있는 남한 기독교인들보다 순교에 초점이 맞추어진 북한과 세계 다른 곳의 지하교인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인지도 모르겠다.

남한 기독교인들이 북한과 전 세계 지하교인들로부터 녹색과 흰색 순교를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아내와 나는 한국 순교자의 소리 단체를 설립했다. 주님은 이제 우리가 남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한국 초기 기독교인들로부터 녹색과 흰색



한국 순교자의 소리 공동설립자이자 CEO인 에릭 폴리 목사(사진 오른쪽)와 그의 아내 한국인 폴리 현숙 목사.

순교자의 소리

순교를 배우도록 돕는 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남한 목회자들이 미국 기독교인들에게서 교회 쇠퇴의 해결 방안을 찾기를 원한다면, 미국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한국의 선조들의 목소리, 즉 김교신, 안창호, 조만식, 주기철, 손양원, 한상동, 김치선, 이성복, 길선주, 김익두, 이용도, 김정준, 남궁억 등 한국 초기 교회의 녹색, 흰색, 빨간색 순교자들의 목소리에서 그 답을 찾으라고 말하겠다. 나는 매일 먼지 앉은 역사책과 희미해진 사진을 펼쳐서 그들의 말을 전하고 위성, AM 라디오, 단파방송, SNS를 통해 방송하면서 그들의 소리가 북한과 남한과 중국 동북지방, 러시아 동남지방과 이민자들에게 들려지도록 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만, 목사인 나의 아내도 내가 이와 같은 매일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교회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모든 한국인들이 매일 이 메시지를 듣고 목상할 수 있도록, 다른 한국 기독교인들도 ‘순교자의 소리’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을 도와주기를 기도하고 있다. 한국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의 말씀을 조사하고 녹음 및 방송하며 전하는 일에 자원 봉사자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말이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순교자들의 소리가 다시금 매일 들려지고, 우리 일상의 대화를 형성하며, 진정한 한국 기독교를 회복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이 나라 역시 변화시키는 것이다.

나는 매일의 이 ‘순교자의 소리’ 메시지를 나누는 형식이 바로 언약 갚신 예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특별한 유형의 예배로, 존 웨슬리(John Wesley)가 일년에 한 번, 보통은 사해 첫 날에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세례에서 주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성만찬을 통해 그 언약을 갚신할 수 있도록 만든 예배이다. 하지만 언약 갚신 예배는 웨슬리 교파만의 예배가 아니다.

순교자로 성장하고 있는 개신교 교회들은 모든 기독교의 예배가 언약 갚신 예

배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으며, 그에 맞춰 자신들의 주일 예배를 구성하고 있다.

순교자의 소리의 매일 언약 갚신 예배는 다음과 같이 드러진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세례에서 주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바로 매일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 죽기로 했던 언약이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우리 삶의 매일 매일을 녹색과 흰색 순교자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향이 미치는 곳에서 고난을 감수하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주된 도구로 우리의 돈이나 기도가 아닌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한국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 중 한 사람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다. 그들에 대한 소개나 해설, 역사적 언급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 순교자의 소리를 역사에 관한 호기심으로 만나지 않는다. 그 대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에 관해 말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성만찬에 참여한다. 이 성만찬의 식탁에서 순교자들은 우리와 함께 임재한다. 그들은 죽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순교자들과 함께 한 몸이 되는 우리의 언약을 갚신한다. 이는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과 주님, 우리가 다니는 지역 교회만이 아니라 그 순교자들에게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교회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 우리가 한국 교회에 속해 있다. 이는 우리 시대나 취향에 맞게 정의하거나 바꾸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전에 존재했던 모든 한국 기독교인들과 앞으로 우리를 뒤따르는 한국 기독교인들까지 책임져야 한다.

가장 특별하게는 한국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이 충실하게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의무를 행하는 거지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아침 6시, 정릉에 있는

고가도로 밑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에 어떤 이들은 놀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 장소는 위대한 한국 초기 기독교인 교사였던 김교신 선생이 사랑하는 한국을 위해 매일 아침 부르짖었던 바로 그 장소이다. 당시 이 곳은 높게 깔쳐진 암벽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폭포가 떨어지며 깨끗한 산골짜기 시내가 빛나던 편평한 바위였다. 김교신 선생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좋거나 기막히게 좋은 눈 녹는 봄날에나, 매일 아침 그곳에서 기도를 드렸다.

오늘날 이 지역의 풍경은 그때보다 훨씬 못하다. 한국의 경제력과 매시간 이리저리 움직이며 좀처럼 가만있지 않는 문화의 상징처럼 말이다. 밤낮으로 자동차들이 머리 위에서 굉음을 내며 질주하고, 덜컹거리는 버스와 트럭들이 잇따라 지나간다. 마치 그 우뚝 솟은 콘크리트 건물 아래서 김교신 선생의 기도는 고요해지고, 한국을 위한 그의 부르짖음은 거부당하며, 그의 이상(理想)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속임수일 수도 있다. 그 고가 도로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덜 영구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김교신의 목소리, 그리고 모든 한국 순교자들과 전 세계 모든 기독교 순교자들의 소리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짐하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7)

◆11월 22일부터 매주 화~금요일 아침 6시, 정릉 고가도로 밑에서 매일 언약 갚신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페이스북과 유튜브, 위성이나 AM 및 단파,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예배에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초기 기독교인들의 메시지를 조사, 녹음 및 방송하는 일에도 도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첫 예배인 11월 22일에는 김교신 선생님의 따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문의: 02-2065-0703, gskim@vomkorea.kr